

Dave Mathewson 박사, 해석학, 강의 5,

번역 및 초기 해석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지난 세션에서 우리는 번역과 관련된 문제, 특히 번역 철학에 대해 논의하면서 스펙트럼의 반대편에 있는 두 가지 주요 철학을 살펴보았습니다. 텍스트의 형식을 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 보다 형식적인 등가물, 독자의 반응이 명확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더 초점을 맞춘 보다 역동적인 등가물, 고대 텍스트와 같은 현대 독자의 반응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고대 본문을 읽는 고대 독자들과도 성중립적 번역에 관해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몇 가지 예를 들며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성 중립적 번역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반드시 의제를 장려하려는 것은 아니며, 성경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업데이트하며 페미니스트 의제를 장려함으로써 성경을 변조하려는 시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 중립적 번역은 히브리어-그리스어 언어가 사용된 고대 텍스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역하는 남성 대명사 또는 남성 단어와 같은 남성 언어의 의미를 포착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하여 모든 인류가 의도된 것이 분명한 맥락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때, 성 중립적 번역은 그것을 포착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원문이 의도하는 바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편과 히브리서에서 살펴본 예는 성별 언어, 즉 남성 언어를 유지한 이전 번역이 현대 사회에서 종종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예였으며, 이것이 때때로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어에서 남성형 언어는 남성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남성과 여성이 언급되는 경우가 분명하다면 성별 번역을 통해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문맥에서 남성만 언급되는 경우에도 성별 번역에서는 남성이 언급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여전히 남성적 언어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성별 번역 문제는 보다 공식적인 동등성에 대한 논의에 적합합니다. 좀 더 원목적인 직역에서 정확한 형태를 유지하는가,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형태를 바꾸고 때로는 희생하는가? 그렇다면 통역에서 번역을 어떻게 사용하거나 어떤 번역이 가장 좋은 번역인가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제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네 가지 지침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들은 단지 일반적인 것입니다.

다른 말도 할 수 있지만 해석에 번역을 사용하는 네 가지 지침은 단순히 현대 번역을 사용할 때 어떤 종류의 번역을 다루고 있는지, 즉 고대 번역인지 여부를 아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나 더 최신의 현대 번역판을 읽으면 당신이 어떤 종류의 번역을 다루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형식적인 등가, 좀 더

나무적인 유형의 번역에서 보다 역동적인 등가 번역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의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알아보세요. 따라서 번역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보세요.

두 번째는 번역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지막 지점에서 언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번역도 원본 텍스트의 의미를 포착하거나 완전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우리와 원작 독자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와 맥락과 저자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에 대한 우리의 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더라도 항상 완전하거나 철저히 극복할 수 없는 원래의 정치적, 역사적 상황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언어가 겹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언어적 차이나 거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언어가 완전히 겹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번역도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데 관련된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포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때로는 특히 일부 시편과 일부 히브리어 시에서 알파벳에 따라 배열된 텍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줄이나 각 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문자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그렇습니다. 영어로 캡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는 특정 유형의 시적 구조가 때때로 희생되거나 때로는 한 언어의 비유적 표현이 다른 언어의 비유적 표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분명히

누락되거나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현대 번역에서는 사라지게 될 텍스트의 동기나 효과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점은 어떤 번역도 성경 본문의 모든 뉘앙스와 의미를 포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그 의미를 실질적이고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반드시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인식하십시오.

세 번째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인이 아닌 학생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표준 조언은 적어도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로 상당히 문자 그대로의 번역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캡처하는 번역은 형식적으로는 더 동일합니다. 즉, 적어도 어느 정도는 구조에 가깝고 노출되며 문법과 형식에 최대한 가깝게 노출됩니다. 따라서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를 읽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어느 시점에서는 완벽하거나 철저하지는 않지만 원어 자체의 구조에 어느 정도 더 가까운 좀 더 목조적인 번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형식적으로 동등한 다양한 목조 번역 또는 문자 그대로의 번역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번역이 있습니다. 번역에 관해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두 가지 숫자를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번역이 모든 의미를 완전히 담아낼 수 없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다른 점은, 해석의 목적은 단지 번역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작업하는 경우 주요 목표는 단지 번역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번역은 의미 전체를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때때로 해설과 설명, 주석이 있는 곳이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해석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번역이 텍스트의 모든 것을 포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르치는 그리스어 주석 수업에서 나는 번역에 있어서 때때로 약간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담아내기 위해 번역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모든 의미와 뉘앙스를 포착하기 위해 설명, 해설, 주석, 해석 자체를 살펴봅니다. 하지만 그게 내 마지막 코멘트로 이어지네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번역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말한 것들 때문에, 번역의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번역도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가능한 한 많은 번역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때로는 번역의 차이로 인해 두 가지 중 하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더 많겠지만, 이 두 가지를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차이점은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본문 모두에서 의도했지만 하나의 영어 번역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뉘앙스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은 때때로 번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처리해야 할 해석상의 문제나 어려움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너 개의 번역을 읽고 있는데 모두 또는 적어도 두 개는 크게 다른 경우 때로는 번역 방식의 차이로 인해 해석상의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차이점은 읽기를 더 원활하게 만드는 문체일 뿐이지만, 다른 경우에는 차이점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다루어야 할 중요한 해석 문제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5장 21절의 번역을 비교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5장 21절은 5장 중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5장의 전반부라고 말하는 이유는 전반부 끝 부분에서 우리는 그 유명한 본문이 영으로 충만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다음은 그리스어 본문에서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자세히 정의하거나 설명하는 여러 분사 또는 여러 구절입니다. 이제 번역을 보기 시작하면 흥미로운 점은 일부 번역이 실제로 새 단락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서는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읽기 쉽고 소화하기 쉽도록 텍스트를 나누고 제목과 단락 제목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 21절 5장에서 새로운 문단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본문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과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랫동안 비교합니다. 그러나 21절을 보면 일부 번역에서는 21절에서 새 문단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20절에서 그것을 떼어내고 문단 제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은 다른 번역판에는 실제로 21절과 20절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는 에베소서 5장의 19-20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큰 차이를 만듭니다. 즉, 21절에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바울은 새로운 주제를 시작합니까? 그는 편지에서 새로운 부분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또는 21절을 이전 구절과 함께 취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의미를 더 설명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예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21절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서로 복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의미에 대한 예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21장은 바울의 편지에서 완전히 새로운 부분을 시작합니까? 그래서 여러 번역본과 에베소서 5장을 나누는 위치를 살펴보면 본문에서 여러분이 다루어야 할 해석적 문제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성경의 문단 구분과 제목은 바울이나 마태, 마가, 이사야, 다니엘 또는

누구든지 거기에 배치한 것이 아니라 현대 번역자들과 추가 사항 및 그들이 제작한 번역.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텍스트를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쉬지 않고 에베소서 전체를 읽는 것은 조금 다루기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발명품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번역위원회의 결정사항입니다.

그것들은 바울이 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감을 받지도 못했고 때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번역을 더 많이 읽을수록, 때로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번역 위원회가 텍스트를 나누는 경우, 번역마다 다른 경우가 있으며 때로는 해석상의 문제가 드러날 수 있으며 텍스트를 읽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번역을 비교하여 추가된 뉘앙스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가 다른지, 어디에서 해석상의 문제나 중요한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서 5장의 본문이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21절이 18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헬라어 본문 자체에 기초하여 좋은 논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령 총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서는 시와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라. 20절, 범사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21절에는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18절로 돌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따라서 텍스트가 어떻게 분할되는지, 번역이 단락의 텍스트를 어떻게 분할하는지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바울이나 요한 또는 그 누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번역자들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장 구분과 절 구분도 무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단지 일요일 아침에 우리가 같은 장소에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뿐입니다.

청중이 장과 절을 구분하지 않고 이사야서 중간 어딘가에서 올바른 텍스트를 찾도록 돕는 목사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텍스트가 어떻게 분할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전개되고 전개되는지를 나타낼 수도 있고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신약성경의 예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것 중 하나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데, 바울이 육체의 일을 대조하는 영의 말씀의 잘 알려진 열매입니다. 내 생각엔 그가 율법의 행위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은 결국 육체의 일을 이기지 못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그것은 5장에서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516절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가 육신과 영, 그리고 성령을 언급하는 영 사이의 대조를 소개할 때입니다. 이는 다시 한 번 제쳐두고 흥미로운 점입니다. 대문자나 소문자를 사용하지 마세요.

사실, 본문 비평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는 개봉된 대본이나 사본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원본 사본은 대문자로 작성되었으며 그 사이에 간격이 없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렇기 때문에 Spirit과 같은 단어를 접할 때 흥미롭습니다. 영어 텍스트에서 대문자로 표시된 경우 이는 해석적 결정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 원래 영이라는 단어나 헬라어 단어 프뉴마를 대문자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리스어로 대문자 P로 쓰지 않았고, 뉴마로 쓰지 않았고, 영어로 대문자 S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을 소문자 s로 사용하여 단지 영이나 인간의 영을 지칭하거나 대문자 S를 사용하여 성령을 지칭하는 것은 번역에 따른 해석적 결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번역에서는 인간의 영을 가리키는 소문자 s로 번역하는 구절이 있을 수 있으며, 같은 구절에서 다른 번역에서는 성령을 가리키는 대문자 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점과 같은 것들도 원문에는 구두점이 없었습니다. 단어가 대문자로 쓰이든 소문자로 쓰든 대부분은 번역가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성령에 따라 살라(대문자 S)로 시작합니다. 번역자들은 이 단어가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전 NIV와 새로운 2011 NIV를 대조해 보겠습니다. 오래된 NIV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최악된 본성이라는 문구에 주목하십시오. 아마도 그들은 이것을 우리 내부에 악을 향해 기울어지는 충동, 성향, 본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그리스어 단어는 우리가 이미 이것에 대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스어 단어는 실제로 sarx라는 단어입니다. 단일 단어 sarx 입니다. 흥미롭게도 다른 문자 그대로의 번역에서는 영어에서 단일 단어를 찾으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육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체의 대조라는 관점에서 이 구절, 이 본문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 사르크 스(sarx), 성령(the Spirit), 사르크 스(sarx) 입니다. 그러나 5장 16절에서는 옛 NIV에서는

그것을 성령과 죄성으로 번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NIV가 무엇을 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2011년에는 구 NIV에서 발견된 것과 거의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여 성령에 따라 살고, 성령에 따라 살고,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단어, 육체라는 단어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 목적은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과정의 후반부에서 의미론과 단어 연구, 어휘 분석을 다룰 때 육체라는 단어에 대해 실제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점은 동일한 두 번역본인 NIV를 비교해 볼 때, 하나는 개정판이지만 다른 번역들도 마찬가지로인데, 한 번역본은 죄성을 번역하고 다른 번역본은 육체를 번역한 것을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내 생각에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무슨 일이야? 왜 번역의 차이가 있나요? 내 말은, 한 수준에서 볼 때 21세기 영어에서 육체라는 단어는 육체, 육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고, 죄의 씨앗이 육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육체 자체를 폄하하는 영지주의 성향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원래의 NIV는 바울이 육신을 의미하는 바, 즉 죄의 본성을 말함으로써 그것을 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죄 많은 본성이 바울이 사용한 단어인 사크(sarks)의 좋은 번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마도 오해를 피하려는 노력에서 번역 철학의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텍스트를 읽을 때 나는 적어도 왜 차이가 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해석상의 문제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가서 Paul이 이 시점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번역 간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해석학과 해석에서 번역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많은 번역을 사용하여 비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번역마다 다른 뉘앙스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차이점이 있는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부 차이점은 다소 중요하지 않으며 스타일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차이점, 즉 텍스트를 나누는 방식, 번역에 사용하는 단어, 문장을 중단하고 새 문장을 시작할 수 있는 위치 등 이러한 종류의 차이점은 통역사로서 해석상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번역이 무엇인지, 그 뒤에 숨은 철학, 번역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영감의 과정에서 성경의 기원을 살펴봤고 그것이 해석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해석의 기초로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구약성서의 원문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인지 본문비평을 통해 재구성한다는 관점에서 전승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전달 과정에서 그것이 어떻게 번역을 통해 번역되었는지, 그 텍스트가 어떻게 우리 현대 세계와 그들의 언어의 독자들에게 제공되었는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조금 더 나아가서 초기 성경 해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해석학이나 성경 해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좀 어리석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본문을 집어들 때입니다. 저는 이미 이것을 말했지만, 다시 반복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집어들 때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기 시작하더라도 그렇게 한 첫 번째 사람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경을 해석한 최초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은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성경 본문에 참여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세기 최초의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자체는 이미 성경 본문이나 성경 본문 내에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성경 저자들, 그리고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듯이 성경은 꽤 오랜 기간에 걸쳐 출판되었기 때문에 종종 성경 저자들은 이전 본문, 성서 본문을 선택하여 해석하고 자신의 시대에 적용합니다. 나이와 자신의 독특한 상황에 따라. 그래서

저자는 자신의 시대와 자신의 청중을 위해 이전 성경 본문을 선택하고 재구성하고 재해석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성경 내적 해석이라고 부르곤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해석이 이미 성경 자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이전 텍스트를 가져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를 적용하고 이해하고 자신의 맥락에 맞게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목표는 이전 텍스트를 현대 독자에게 관련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모호한 텍스트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단지 이론적일 필요는 없었지만,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텍스트가 여전히 관련성을 입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후대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매우 좋은 예 중 하나입니다. 몇 가지 예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구약의 예언 문헌을 살펴보겠습니다.

때때로 선지자들의 이전 예측과 예언은 포로 생활 이후,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마침내 그 땅으로 돌아올 때와 같이 후기 선지자들에 의해 선택됩니다.

때로는 포로 생활 이후에 이전 본문을 선택하여 해석하고 그것이 여전히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선지자들이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의 백성에게 다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은 실패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예언을 이루어주시고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서와 당시

유대교 해석의 일부, 그리고 신약성서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목적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해석 활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 또는 그 뒤에 있는 이론이나 신학적 가정, 또는 정확히 그들이 하고 있던 일. 그러나 주로 성경 자체 내에서 이전 텍스트가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맛보기를 제공합니다.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예를 들어, 구약성서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전형적인 예를 몇 가지만 제시하고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기 위해 역대기 상하서는 예를 들어 열왕기 상하의 자료를 취하고 비슷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이에 있는 것처럼 이 책들 사이에는 나중에 이야기하게 될 소위 공관복음이 있지만 역대상상하서는 열왕기상하의 자료를 가져와서 새로운 배경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유배 이후 한동안, 아마도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유배 이후의 관점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확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상황과 관련되게 만들고, 그것이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우리는 예언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종종 후대의 예언서와 작가들은 이전의 예언서, 특히 성취되지 않은 예언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패한 예측이나 예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자는 입증하고 재주장하기 위해 그것들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것을 성취하실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러한 예언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 예언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므로 선지자들은 그 약속을 선택하고 다시 주장하며 그 약속이 여전히 성취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실제로 성취하실 것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예언을 받아들여 새로운 세대를 위해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의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파괴될 때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그 땅으로 다시 데려오시고, 그들을 그 땅으로 회복시키며, 성전을 재건하심으로써 그분의 약속을 실제로 성취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예언합니다.

특히 이사야서의 처음 39장에서 그러한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실 새 성전인 종말론적 성전의 재건축과 재건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초기 선지자들은 포로 생활에서 백성이 회복되고, 새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께서 성전과 그 땅에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실 성전이 재건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일부 선지자들에 따르면 포로 생활의 상황은 이사야나 에스겔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때문에 후기 선지자들이 여전히 성전 재건과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지서와 학개서, 2장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다면, 학개서 2장을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이나요?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나요?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는 강건하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닥 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힘내라 . 이 땅 백성이 담대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일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것이요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느니라 무서워 마. 그래서 선지자는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시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심지어 언약의 공식이 반복되는 것을 주목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그러나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한 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내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라.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울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은은 내 것이다. 금은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전의 영광이 이전 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 곳에 내가 평화를 주리라. 그러므로 포로 생활이 끝난 후, 사람들이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의 상황은 이제 일부 위대한 선지자들과 그들의 예언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집을 그분의 영광으로 채우시며 이사야와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환상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재확인합니다.

그래서 후기 선지자들은 종종 이전 예언의 본문을 취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체면을 세우거나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통제하고 계시며 실제로 그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다시 집어 들고 그것들이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고,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서 자체가 이미 해석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당신은 성경 본문을 받아들이고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여 자신과 현대 독자에게 관련성을 갖도록 노력하는 오랜 전통의 선상에 서게 됩니다. 해석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 저자들에 의해 성경 본문 자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특히 구약과의 관계에서, 성경 본문을 해석하려는 초기 시도의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세기의 유대교인 랍비 유대교는 신약성서 시대인 1세기까지 이어지며 구약성서 본문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에 관한 수많은 시도와 사상을 드러내고 그 이후에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해석하고 이해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주요 목표는 구약성서에서 본 것처럼 이러한 텍스트가 어떻게 관련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텍스트의 순수한 의미를 지적으로 밝혀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텍스트가 어떻게 관련되는지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합니까?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3~4개의 본체입니다. 실제로 나는 랍비 유대교와 관련된 네 가지 주요 작업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유대교는 자신의 성경을 이해하고 관련성을 갖도록 노력합니다.

이것의 많은 부분, 제가 이야기할 많은 문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 많은 부분은 신약 시대 이후에도 기록되었으며, 특히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된 사건과 함께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것의 대부분은 글쓰기에 전념했지만 아마도 여전히 많은 곳에서 그것이 기록되기 오래 전에 이미 일어났던 해석 활동을 반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쉬나(Mishna)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미쉬나는 기본적으로 당시 랍비들이 구전으로 율법을 해석한 것을 성문화한 것입니다. 즉, 모세의 기록된 율법과 함께 구전 가르침과 구전 문헌이 자라났고, 그 후 약 서기 200년, 즉 그리스도 탄생 후 대략 200년 후, 그 사건 후 200년 후에 미슈나가 생산되었습니다., 이는 이 구전 전통을 문학적으로 인코딩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슈나는 아마도 1세기 말에 기록된 마지막 기록인 신약성서보다 훨씬 늦게 기록된 형태로 나타나고 등장하지만, 아마도 여전히 많은 사건이 발생한 율법에 대한 해석 활동과 이해를 구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 일찍.

그래서 구전법의 기록된 형태인 미쉬나(Mishna)는 구전법이 미슈나의 형태로 기록되도록 약속한 것입니다. 또 다른 문헌으로는 탈무드로 알려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주 간략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탈무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팔레스타인 탈무드로 알려졌고, 다른 하나는 바빌로니아 탈무드로 알려졌습니다. 이 두 이름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년에 생산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비록 이것들이 훨씬 나중에 집필되기는 했지만, 그들은 다시 한번 유대인 통역사들의 아주 아주 초기의 해석 활동을 구체화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탈무드는 미슈나에 대한 추가 주석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슈나 자체는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탈무드는 미슈나에 대한 추가 주석이자 설명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미슈나 자체는 구전 율법을 기록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간략히 강조할 또 다른 세 번째 문헌은 미드라쉬(Midrash)이다. Midrash는 기본적으로 성경 본문에 대한 일종의 연속 주석이었으며, 성경 본문은 종종 이와 같이 취급되었습니다.

본문의 한 구절을 인용한 뒤 이를 풀어서 해석했습니다. 종종 그것을 해석하는데 사용된 구약성서에서 다른 텍스트를 가져와 랍비들이 이 구절에 대해 말한 내용을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미드라쉬는 성경 본문에 대한 일종의 연속적인 주석이었습니다. 일부 설교자들이 일요일 아침에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석과 설명이 포함된 본문을 통해 한 절씩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문헌은 타르굼이 될 수 있습니다. 타르굼은 기본적으로 구약성서의 아람어 번역 또는 의역이었습니다. 아람어가 표준어가 되면서 성경도 아람어로 전달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르굼이 회당에서 아람어로 구약성경을 가르치는 데서 유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중에 그것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Targums의 형태로 기록되기로 약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르굼은 대부분 구약성서나 신약성서보다 훨씬 늦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실제로 저작에 전념한 날짜보다 훨씬 이전인 해석적 활동과 의역을 구현하고 포함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Middow 로 알려진 랍비 해석 활동을 특징짓는 규칙이 종종 있었습니다 . 이것의 한 가지 특징, 또는 모든 규칙을 거치지 않고 이를 통과하는 많은 교과서가 있지만 그 중 몇 가지만 강조하면 몇 가지 규칙이 실제로 규칙인지 여부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그들이 한 일과 그것이 어디서 유래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따르거나 간단히 설명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들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소위 랍비 해석 활동의 규칙 중 하나는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논쟁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덜 중요한 것이 사실이라면 더 큰 것도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예수의 비유에서 이런 종류의 논증을 발견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그분은 자주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논하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그는 만약 하나님이 새들에게 관심을 갖고 옷을 입히고 돌본다면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갖고 더 큰 것에 관심을 가지신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될 것이며 창조의 절정이 될 것입니다. 인류.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논쟁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인간 재판관이 마침내 여자를 공정하게 대한다면, 확실히, 작은 것이 참되고, 큰 것이 참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 정의를 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특징은 더 작은 것에서 더 큰 것까지 논쟁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은 여러분이 자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신약성서에서 자주 발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급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비슷한 내용을 지닌 다른 구약성경 본문에 비추어 한 본문, 즉 구약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표현이나 어휘. 때로는 그것들을 서로 연결하는 단 하나의 단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가 포함된 성경 본문을 선택하고 유사한 단어가 포함된 다른 구약성경 본문을 찾아 이를 사용하여 해당 텍스트를 채우고 풀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들은 공통된 어휘나 주제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활동의 중요성은 초기 해석자들이 자신의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성서 저자들이 초기 구약성경 본문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랍비 문헌을 살펴보고 구약성서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초기 해석자들이 자신의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또한 이것이 신약성서 저자들이 구약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읽고 활용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구약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씨름하려는 또 다른 비성경적 해석과 시도의 원천은 사해 두루마리에서 나온 콤란 문헌입니다.

콤란 공동체는 사해 근처 공동체에 고립되어 사해 두루마리라는 이름이 붙은 종파였으며, 예루살렘의 설립, 현상 유지 및 사제직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과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그 영향력에 반응했습니다. 그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성전, 즉 성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다른 유대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전을 세우실 참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을 이해하는데 있어 사해 두루마리의 중요성은 콤란 공동체가 실제로 구약성서에서 발견한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정당성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예상하고 정당화하면서 거의 예언적으로 구약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쿰란 본문을 읽고 그것이 우화적이며 성경을 빠르고 느슨하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활동의 이유, 자신의 상황에 따른 기대와 희망을 설명하고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쿰란 문헌에는 온갖 종류의 예가 있습니다. 때때로 쿰란 문헌은 단지 구약성경 본문을 복사한 것뿐인 구약성경 본문의 단순한 판이나 사본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지역 사회 생활에 대한 지침과 규칙 및 규정을 제공하는 데 더 적합한 텍스트를 공개합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텍스트 중 일부가 더 흥미롭게도 우리가 얘기한 미드라쉬와 더 비슷합니다. 성경 본문에 대한 주석입니다.

매우 흥미롭고 드러나는 것 중 하나는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하박국, 페세르, 하박국 주석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훨씬 더 흥미로운 것은 적어도 이사야 페세르나 이사야 주석만큼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는 일은 우리가 미드라쉬에 대해 이야기한 것과 매우 유사하며 사해 두루마리 중 일부는 단편적이므로 완전한 주석이나 완전한 텍스트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그들이 하는 일은 성경 본문을 한 줄씩 살펴보고 각 줄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구절을 인용한 다음 그것을 해석하고 다시 설명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커뮤니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본문 중 하나는 이사야서 54장의 주석 또는 미드라쉬입니다.

그리고 54장은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회복의 때를 기대합니다. 그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 땅으로 다시 데려오시고 회복시켜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실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책 끝 부분에 새로운 창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54장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우리는 예루살렘과 그 백성의 회복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설명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회복의 시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장과 12장, 오 고난받는 도시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되십시오. 이 도시는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로 외국인들에게 멸망당하고 사로잡혀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가 이르되, 오 폭풍우가 휩쓸고 위로를 받지 못하는 곤고한 성읍이여. 이제 대조가 있습니다.

내가 청록색 돌로 너를 세우며 남보석으로 네 기초를 세우리라. 내가 홍보석으로 네 흥벽을 만들고 빛나는 보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며 네 모든 성벽을 보석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네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네가 굳게 설 것이며 폭정이 네게서 멀어질 것이다. 그러면 포로 생활의 상황은 역전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 오고 도시는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저자는 이러한 보석과 보석으로 다시 세워진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시의 주요 특징, 기초, 도시를 구성하는 돌, 흙벽, 문, 성벽 등을 항목별로 나열하고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따라서 도시는 그것을 구성할 이러한 귀중한 보석의 관점에서 묘사됩니다. 재건축되면.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점은 쿰란 공동체가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가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모든 돌과 도시의 일부를 가져다가 그것을 공동체 구성원을 지칭하도록 비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원래 창립 구성원, 쿰란 공동체 의회, 대제사장 및 기타 그룹은 도시의 이러한 조각, 도시의 건축적 특징 및 그것을 구성하는 보석과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쿰란 공동체는 이 본문에서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정당성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가 실제로 쿰란 공동체의 설립을 예측하고 예상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책에서 문자 그대로 재건된 도시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이사야 54장, 11장, 12장에서 그 도시의 일부를 실제 인물을 가리키는 비유로 발견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바울과 다른 신약성서 저자들이 도시의 건축 벽돌이나 도시의 돌, 성전의 일부를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야 베드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건축되는 돌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콤란 공동체는 공동체로서의 창립 자체가 이사야 자신이 예언했던 것과 다름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의 존재와 설립에 대한 정당성을 생각하면서 이 텍스트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기대와 존재에 대한 정당성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콤란 공동체는 성경 본문을 취하여 해석하거나 재해석하여 그들 자신의 존재를 언급하고, 자신의 공동체를 언급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적절하게 만들고, 그들이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지속적인 중요성과 타당성.

다시 말하지만, 콤란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은 단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는 단순한 인공물로 보지 않고 원래의 역사적 의미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도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하는 일에 동의하든 안 하든, 또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리 어리석게 보이든 그들은 본문을 취하여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타당성과 타당성을 보여 주려고 합니다. 낮.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해석 활동이 신약에서도 계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중 하나는 대부분의 신약 저자들이 유대인이거나 유대교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랍비 해석에서 발견하는 표준 해석 방법을 어느 정도 단순히 반영하고 따르고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유사한 기술을 따를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대부분 구약의 렌즈를 통해 구약을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 그들은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제시하는 가장 잘 알려진 본문 중 하나는 누가복음 24장과 2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 그들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24-27절은 가장 흥미로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어리석고 모든 선지자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고난이 선지자들에게 예언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27절은 아마도 구약에 대한 예수님의 접근 방식을 요약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해되고 놓여질지라도, 이런 종류의 일은 아마도 그의 추종자들이 구약을 해석하는 방법의 기초를 놓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가 이어서 말하노라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따라서 이와 같은 본문을 바탕으로 신약성서 저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렌즈를 통해 구약성서를 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계시의 절정, 성취, 구약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에 비추어 구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서 해석의 몇 가지 예를 제시하고 심지어 신약성서 저자들의 해석 활동 범위를 보여주기 위해 문자 그대로의 해석부터 유추적이거나 유형론적인 해석까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즉, 때로 신약성서 저자들은 구약성경 본문의 문자 그대로의 성취를 거의 직설적으로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때에는 이 책을 읽을 때, 신약성서 저자들이 예수님이나 어떤 사건이 이 구약성경 본문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는지가 그다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연결은 예측과 성취 중 하나가 아닐 수도 있지만 더 유추적이거나 유형학적일 수 있습니다. 즉, 저자는 반복되는 패턴을 본다.

구약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신약 시대에도 유사하지만 더 큰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신약성서 저자들이 구약성서 본문을 활용한 여러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션에서 우리는 신약성서 저자들이 구약성경 본문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고 해석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큰 간격을 남겨두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사의 많은 시대를 다시 뛰어넘어 해석의 주요 인물을 다루고 그것이 해석학에 접근하는 방식과 성경 해석에 참여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폭넓게 설명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이 본문을 집어 읽고 읽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텍스트를 선택하고 읽을 때 고립되어 읽히는 것이 아닙니다. 진공상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깨닫든 모르든, 당신은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당신보다 먼저 간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그 대열에서 당신의 입장을 취하면서 그것에 도달하게 됩니다.